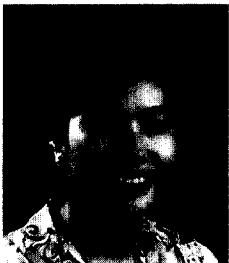


일본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을 통한 직업교육의 발전 동향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우리 나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이나 능력 개발을 돋기 위해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5: 59~62)과 후속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 8~10)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산업사회의 변화나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을 보장하고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시범 사업으로 벌일 계획으로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최근 사회적 변화나 개인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의지의 일면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움직임은 교육의 다양화나 질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 내용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서 고등학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일과 학습의 연계를 의미하며, 일과 학습이 분리된 종전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市川昭午 編著, 1996).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문계와 실업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이원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추진 방식도 각기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는 교육 개혁의 목표하에 고등학교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1991년도부터 개성화와 다양화를 목표로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흥미·관심·진로 등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고,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구조의 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특성있게 운영하는 학교 만들기 작업이 꾸준히 추진해 왔다(文部省, 1997: 263).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흐름과 이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추진 방향은 넓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구체적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방향에 중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문부성이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개혁 방향과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중 고등학교 교육 개혁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직업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종합학과(일본에서는 이를 總合學科로 불리고 있으나, 이글에서는 종합학과로 명명하여 제시한다)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종전 운영되어 오던 전문학과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교육개혁에서 나타나는 일본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발전 동향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일본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가. 개혁의 기본 방향

41

일본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계, 실업계, 또는 특수목적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외형적인 구분보다는 인문교육을 실시하는 보통학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학과, 또는 기타학과 등으로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윤병희 외, 1996: 300).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종합학과를 적극 권장하고 중·고통합교육, 코스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고등학교 유형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학과를 구분하는 것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은 사회적 변화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 개혁의 목표를 개성화·다양화에 두고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부성은 1991년 4월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과 이 답신을 받아 다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 「고등학교 교육의 개혁 추진에 관한 회의」의 보고서(1992년 6월-1993년 2월)에 기초하여 종합학과를 창설하고 단위제 고등학교의 전일제 과정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현행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선택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6년 7월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외에서 수행한 활동 성과를 단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부성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협력자협회」를 개최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997년 9월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서에서 제언하였다. 이 제언에는 ①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의 감소, ② 공통 이수과목을 최소한으로 축소, ③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실습 등 학교 외부에서의 체험 활동을 단위로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文部省, 1997: 264).

이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고등학교의 유형으로는 '종합학과', '단위제고등학교', '코스제' 등이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중·고통합교육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등학교의 유형 선택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유형의 장점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새로운 고등학교 유형

일본은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개성화·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고등학교의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文部省, 1997: 265, 文部省中央教育審議會, 1997).

다. 단위제 고등학교

단위제 고등학교는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분이나 이수 단위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졸업까지 정해진 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8년에 단위제가 정시제와 통신제 과정에 도입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전일제 과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제고등학교는 학생의 폭넓은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입학과 졸업, 전학과 편입학의 도입, 과거에 재학한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단위를 누적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4월 현재, 전일제 과정 91개교를 포함하여 모두 172개교가 단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라. 특색있는 학교·학과·코스제 운영

교육과정이 종래와 같이 전문학과나 보통학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요

구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자유 선택과목과 코스 등에 의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한 종합선택제고등학교,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귀국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국제고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등학교 이외에도 학과를 신설하거나 재편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선택이 가능한 코스제의 도입 등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 중·고통합교육

일본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간에 연계를 추진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71년도부터 6·3·3·4의 학교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중·고통합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입시 경쟁의 저연령화를 초래할 위험으로 오랫동안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국·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이 상당한 정도로 확산된 상태이며, 공립의 경우는 1994년에 처음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중·고통합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학교제도를 다양화·복선화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통합교육을 통해 체험학습, 지역에 관한 학습, 국제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에 관한 학습, 전통문화 계승 교육 등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고통합교육의 실시 형태는 보통 ① 동일한 설립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하여 하나의 6년제 학교로서 설립하는 경우, ② 독립된 6년제 학교(소위 6년제 중등학교), ③ 시·정·촌립(市町村立) 중학교와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고통합교육은 교육내용의 유형에 따라 ① 일반계 유형, ② 종합학과 유형, ③ 전문학과(직업학과, 예술과, 체육과, 외국어과, 과학과 등)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학교 설립자가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고통합교육의 장점으로는 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유있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한 점, ② 6년 동안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가능한 점, ③ 6년 동안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학생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우수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점, ④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차가 큰 집단에서 활동

함으로써 사회성이나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문부성은 1999년도의 도입을 목표로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립 중학교와 도·도·부·현립 고등학교가 연계한 중·고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1998년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 종합학과

종합학과는 보통학과 및 전문학과를 병행한 새로운 학과로서 1994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다. 종합학과 교육의 특징은 학생의 개성을 살리고 주체적인 학습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갖게 해 주며, 일을 체험시키는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다. 또한 장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인식하고, 이를 심화시키는 학습이 중시된다. 종합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산업사회와 인간」, 「정보에 관한 기초적인 과목」, 「과제연구」이며, 나머지 과목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종합학과는 고등학교 교육개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997년 4월 현재, 국립 2개교, 공립 68개교, 사립 4개교 등 총 74개교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종합학과의 구체적인 운영 실체를 2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森謙司, 1998, 藤村源次, 1998).

1) 애히메현립 가와노이시고등학교(愛媛縣立川之石高等學校)

이 학교는 1996년도부터 160명의 4학급을 중심으로 전일제 종합학과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종합학과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을 보면 ① 1학년은 필수과목 20단위, 기본필수과목(「산업사회와 인간」, 「정보기초」) 4단위, 종합선택과목(영어I, 말하기A) 6단위, ② 2학년은 필수과목 11단위, 종합·자유선택과목 19단위, ③ 3학년은 필수과목 5단위, 기본필수과목(「과제연구」) 2단위, 종합·자유선택과목 23단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선택과목은 107과목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계열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가 특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과목으로는 「애히메(愛媛)의 역사」, 「음식과 건강」, 「비지니스영어회화」, 「시설원예」, 「비서실무」 등이 있다. 이 학교는 계열을 ① 인문국제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생물생산계열, ④ 스포츠과학계열, ⑤ 정보비지니스계열, ⑥ 복지 서비스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학과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산업사회와 인간」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통해 주체적으로 연간계획의 입안, 산업노트의 작성, 강연 및 진로지(進路地)의 견학, 체험학습 기획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사회와 인간」의 과목 지도는 ① 기업 및 단기대학, 전문학교 등의 현장 및 진학지 견학, ② 체험학습, 무우 재배, ③ 직업, 근로, 인생관에 대한 외부인사의 강연, ④ 농업, 상업, 복지 계열 체험학습, ⑤ 개별 상담 및 면담, ⑥ 생애 계획 작성과 의견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중학생에게 종합학과의 시설과 설비를 견학시키고, 체험학습을 통해 종합학과 교육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름방학중에 인근 12개교의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1일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중학생은 이 학교에서 개설된 6계열 중 2계열을 선택하여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체험 학습후에는 질문지를 통해 종합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의 개선에 참고로 한다.

계열별로 수행하는 체험 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문국제계열: 캐나다인 강사의 영어회화 교실과 게임
- ② 자연과학계열: 환경 과목에 관한 이과실험
- ③ 생물생산계열: 난(蘭) 재배실험
- ④ 스포츠과학계열: 즉석 유산음료의 제조실험
- ⑤ 정보비지니스계열: 컴퓨터를 통한 실습체험
- ⑥ 복지 서비스계열: 간병(介護) 실습체험

이 학교는 약 2년 동안 종합학과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성취와 생활태도면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학습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 구마모도현립 상양고등학교(熊本縣立新陽高等學校)

약 9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1996년에 이 현에서는 처음으로 종합학과 고등학교를 도입하였다. 1996년도 입학생부터는 종전의 학과제를 전부 폐지하여 종합학과 고등학교로 교체하고 현재의 상양고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다.

이 학교는 ① 기계계열, ② 전자계열, ③ 환경계열, ④ 식품공학계열, ⑤ 인문이과계열, ⑥ 시스템기술계열, ⑦ 생활디자인계열, ⑧ 정보비지니스계열 등 총 8계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개설 과목수는 140과목에 이르고 있으며, 특징적인 과목으

로 「클린디자인」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업학과의 「기타과목」으로서 신설된 것이며 종합학과 전교생이 이수해야 할 학교지정 과목이다. 이 과목은 2학년에 2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채나 화초의 재배를 통해 기르는 기쁨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입학을 실시함으로써 중학생의 종합학과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원하는 학생들의 입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어·사회·수학·이과·영어의 5개 학력검사 교과 중에서 학생이 선택한 2교과에 대한 학습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진로를 지도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학과를 운영하면서 선택제와 단위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비해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출결상황·성적상황 등 학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일 발생하는 학생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이상 종합학과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최근 일본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발전 추세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특정한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보다는 일반교육과 병행하여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학과는 일본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직업의 의미나 중요성을 체험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종합학과는 일반계와 실업계간의 질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나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학습을 실시하며, 일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을 운영함으로써 평생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유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일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발전 동향과 시사점

최근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吉本圭一, 1998: 10~11).

첫째,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기본 목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기본'을 형성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분업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종합학과이다.

둘째,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기술 습득보다는 직업적인 가치관과 흥미를 형성하

는 '직업적 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는 개별 지식이나 기술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직업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목표를 둔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첫째, 「근로체험」, 「직장학습」, 「인턴쉽」 등 학교 재학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직업 세계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에서 일로' 또는 '일에서 학교로'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보통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의 통합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사회와 인간」과 같이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시키도록 한 교과의 편성, 「종합학과」와 같이 학교 학과의 조직 통합, 학교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상호 통합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통합은 일본 교육제도 전반에 약점으로 나타나는 산업사회와의 연계 학습을 강화하고 보통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을 동등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학과에서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계열을 설치하고 이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일본 고등학교의 전문학과에서는 특별 선발이나 추천제도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으며,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

넷째,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산업체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파트너 쉽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역의 전통공예품산업과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산업체와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山極 隆, 1988: 7). 오랫동안 '교육훈련'이 산업체의 몫이 되어 왔던 일본은 단순히 졸업생을 채용 과정에서 산업체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었을 뿐,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Hoerner and Wehrley, 1995: 89, Rosenbaum, 1998).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제도와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연계, 교육계와 경제계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 고등학교 교육개혁의 과정은 사회 변화 및 개인 요구에 부응하여 직업 교육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일본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평생학습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 고등학교의 교육개혁 동향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고등학교의 위상과 성격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 조차도 고등학교 교육개혁 방안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각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문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이원화된 구분은 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돋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직업 교육을 이류교육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한다.

평생학습사는 직업교육의 의미를 바꿔놓고 있다. 직업교육은 이제 특수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학습과 일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바람직한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 태도 및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발전 동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둘째, 인문계는 물론 실업계 고교 조차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에서 학생의 적성이나 개성을 살리고, 조기에 직업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습과 일의 세계를 유연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다양화를 목표로 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나 학교 조직, 더 나아가 교육체제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고등학교의 개혁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특성화에만 강조해 왔으며, 이를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육의 진정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교육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더 나아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기존 교육제도와 학교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우리의 경직화된 사고를 보다 유연화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육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
- (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3차 대통령보고서.
- 윤병희 외(1996).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교육부 위탁연구 보고서.
- 市川昭午編 著(1996). 生涯かがやき続けるために. 東京: 聯合總合生活開發研究所.
- 吉本圭一(1998). 諸外國における職業教育の動向と我が國の職業教育の課題. 産業教育. 第48卷
第6號 通卷 577號.
- 藤村源次(1998). 翔け未来へ -個性・夢・創造- 産業教育. 第48卷 第4號 通卷 575號.
- 文部省(1997). 我が國の文教施策. 東京: 文部省.
- 文部省中央教育審議會(1997).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中央教育審議
會第2次答申), 1997年 6月.
- 山極 隆(1998). 今後の職業教育が目指すもの. 産業教育. 第48卷 第1號 通卷 572號.
- 森 謙司(1998). 個性を伸ばし自ら高める學校づくり. 産業教育. 第48卷 第1號 通卷 572號.
- Hoerner, J. L. and Wehrley, J. B. (1995). *Work-based Learning: The Key to School-to-work
Transition*. Glencoe: McGraw-Hill.
- Rosenbaum, James E. (1989). *Linkages between High School and Work: Lessons from
Japan*.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